

農 夫 病

이 원고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각종 職業病이 다발하였던 1960년대 日本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日本中央勞動災害防止協會와 東京타임즈가 편집한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고될 것들이 많아 요약하여 연재하는 것이다.

편집실

日本 東北地方 山形縣 庄內평야는 기름진 녹색의 水田이 무한히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이른 봄의 저온과 여름에 들어서서의 두번의 집중호우도 이 비옥한 곡창지대에 있어서는 제초작업을 1주일정도 늦추게는 하였으나 흉작의 원인이 되지는 못하였다. 비약적인 영농기술의 발전은 이 곡창지대에 풍작을 가져와 농가소득이 안정되었고 農業基本法이 공포된 1960년이후에는 매년 증가의 일로를 걸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은 庄內농가의 주부들 간에서 농촌의 빈곤이 원인으로 알려진 農夫病과 관련된 貧血症을 보이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생활하는 비농가주부나 타직업에 종사하는 부인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것이 이지역에서 개

업하고 있는 한 의사에 의하여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 의하면 1966년 4월부터 1년간 山形縣내에 獻血을 신청한 5,461명의 여성헌혈희망자중 低比重으로 불합격이 된 1,043명을 대상으로 貧血調査를 한 결과 저혈비중자는 농가주부가 65%, 붕급자의 가정주부가 26%, 학생 6%, 상공업종사자 3%의 순이었다. 이들은 血液중 赤血球容積, 血色素量등의 직업별비교에 있어서도 농가의 주부는 반수이상의 정상치이하였다.

농가 주부의 빈혈증상이 일반가정주부나 여성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농업노동이 戰後 영농기술의 진보와 기계화로써 자연노동의 조건을 극복하였다고하나 寒暑

의 차가 심한 옥외에서 종일 일하는 노동조건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이것이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의한 주부노동화의 경향속에서 특히 체력적으로도 약한 주부에 부담이 되어 과로와 저영양에서 貧血症으로 나타난다고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보고된 바도 있다. 그러나 庄内地方 농가의 주부들에 있어서는 이 지방이 타 농촌에 비하여 특히 富農이라는데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상식으로서 농촌주부의 빈혈현상은 농촌경제의 저소득에서 오는 식생활의 빈곤을 제일요인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 지방 주부에서 빈혈증도 역시 식생활의 빈곤에 의한 저영양과 과중노동이 원인이 된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 농가들은 두집에 한대씩 트럭이 있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풍족한 농가들인데 이러한 농가에서 왜 農夫症이 일어나는가. 이점에 대하여 조사하던중 이 지방의 출생아중 未熟兒(출생시 2,500g 이하의 체중미달신생아)가 특히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원인은 빈혈증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에서 온것임을 알아 내었다.

이 지방의 개업의사인 本間氏は 「매년 모내기 끝나면 병원을 찾아오는 농가의 주부환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데 공동작업의 긴장의 연속에서 해방되는 순간 축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나타나 누워버리는 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부환자들은 모두 심장의 동기, 어지러움, 손발의 절임등 갱년기증상의 호소가 눈에 띄는 반면 운동계의 장해증상은 적다. 이런것으로 보아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가 이러한 특증으로 나타난다고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예컨대 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계화의 영향으로 트랙터를 위시하여 고가한 농기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락들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개

개 농가에 따라 작업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것이 공동작업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에게 부담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결국 인간이 기계에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을 가장 많이 받게 된것이 주부들이다」라고 부언하고 있다. 트랙터 같은 고성능기계의 도입으로서 과거에 비하여 장시간 노동은 완화되었으나 집중노동의 밀도는 강화된 것이다. 이것은 기계의 성능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 경향은 강화되어 개인차를 가진 농민의 노동능력을 초과한다. 노동력이 충분이 있으면 좋으나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기계화임으로 결국 기계에 밀려서 무리를 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주부에게 걸리게 되어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다. 큰 기계를 조종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기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의 잡일들은 주부가 하게 마련인데 주부가 부담하는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수작업은 단순작업이면서도 집중작업임으로 육체적이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담을 준다. 예컨대 가을의 수확작업에 비인 다 기계가 도입되어 벼를 빠른 속도로 베어 묶어 나가는데 이것을 벼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키는 작업은 주부의 일이 된다. 일견 간단하게 보이며 이 작업은 기계에 쫓겨서 하는 가혹한 일인 것이다.

육체적 노동이라는 면에서 보면 확실히 옛 노동은 중노동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벼를 베어 묶은후 거는 연속작업으로서 같은 중노동이라도 노동의 리듬이 있었다. 그러나 대형 기계가 별안간 부분적으로 단독 도입됨으로써 수작업으로 남겨진 부분은 하루종일 하는 단순작업으로 노동의 리듬에서 밀려 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일정한 긴장과 작업자세만으로서 대형기계 도입에 의한 양적 수작업의 증가와 이러한 집중작업에 대응한 육체적 조건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

태에서 農夫症을 가져온 요인이 된 것이다.

노동의 리듬이 무너진 작업에 인간이 순화된다
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완전기계
화밖에 없는데 미국과 달리 농토가 적은 일본에
서 기계만에 의한 작업으로 오는 손실은 일본의
농업으로서는 치명적이 되므로 이 모순을 해결하
기란 어려운 것이다.

농촌의 경제는 공업화로 인하여 농촌의 젊은
이들이 공장을 찾아 도시로 진출함으로써 노동
력의 부족을 가져왔고 이를 메꾸어주기 위하여
농기계의 도입이 이루어 졌는데 이 기계를 사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가들은 부업, 예
컨데 果樹, 養蠶, 花草栽培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부들의 노동은 직공에서 가정부 그리고
주부의 3역을 겸한 격무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식생활의 결함, 아직도 남은 봉건가정제도에 있
어서의 압박과 반대로 핵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문화생활에 대한 욕망등 여러 인자들의 복합적 작
용이 비특의적 증상군(汎適應症狀群)으로서 출
연하는 것이라고 日本農村醫學會長 若月俊一博士
는 말하고 있다.

農夫症은 일본보다 기계화가 발전되어 있는 구
미 각국 농촌에 있어서는 적다. 이것은 우유를 마
시며 신선한 야채를 섭취하고 여유있게 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며 반면 기계화가 진행 되고
있지 않는 동남아의 농민들은 일본 농민들 보다
도 農夫症이 많은데 이것은 영양실조와 간염병과

기생충병의 간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일본에 있어서도 농민들의
건강상태는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부업을 겸직
하고 있는 농가주부에서는 農夫症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이다. 라고 若月博士는 말하고 있다. 이어
서 그는 農夫症은 고정된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전신 증상군으로서 高血壓, 動脈硬化, 心筋障害,
腎硬化, 류마치스등 농촌에 다발하는 질병들의
전구증상으로서 농민의 건강을 판정하는 한 지
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에서는 전쟁중인 1942년 能谷太市博士가
농촌 중년 주부들에서 이러한 증상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農夫症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반드시
부인에서만 아니라 젊은사람에서도 옴으로 그
후 農夫症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이러한 증상은 都市의 歡樂街에서 일하는 종
업원, 자동차운전기사들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農夫症이라는 것은 第1次産業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중요한 건강장애임으로 농부증으로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農夫症을 해방하기 위하여는 증상이나 질병뿐
만 아니라 農村構造改善事業이 필요하다. 농촌
현대화의 구호속에서 기계화가 진행할 수록 부
채가 늘어나며 본질적으로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환경에 있어서의 농민 특히 농촌주부의 건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